정화조 내부 작업중 질식

재해일시	2017년 6월 22일
재해유형	정화조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

재해개요

2017년 6월 22일 오후 5시 13분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 한 도로의 맨홀 아래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**근로자 2명이 가스에 질식**했다. 이 사고로 근로자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. 근로자 B씨는 맨홀 아래서 실종돼 출동한 소방당국이 수색 중이다. **A씨는 맨홀로 먼저 들어간 B씨가 보이지 않아 구조**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.